

나주시, 시민 염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속도

2020년 道 공모...부지 확보 위해 영상테마파크 부분 철거 내년 9월 착공·2025년 개관...“착공 전 시민설명회 개최”

나주시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7월부터 나주영상테마파크 부분 철거에 돌입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전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남도 역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돼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8만3천686㎡(11만평), 연면적 6천884㎡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 확보를 위해 이르면 7월부터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있지만 시는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박물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07년 준공된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을 부분 철거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남도의병역사공원 조감도.

킨다는 방침이다. 박물관 건립 부지 외 고구려공은 존치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시는 테마파크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철거 반대 주장 시민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시민 공론화 없는 테



〈나주시 제공〉

마파크 철거 강행, 부지 무상기부 의혹, 과도한 철거 예산 편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 대해 2019년 7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당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박물관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왔으며 같은 해 8월 유치기원 학술 포럼, 시민 서명 운동에 이어 9월 의병문중, 시의

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시민 93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 2020년 7월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중 현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시는 2021년 3월 전국 14곳 의병문중,

광주·전남지역 5개 독립운동단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지원단’도 발족하는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시는 테마파크 부분 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교감에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박물관 착공 이전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물관 부지 11만평 무상기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0년 12월 전남도와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박물관 건립 부지는 무상 기부가 아닌 무상 사용 허가 사항”이라며 “올해 3월 시의회 동의를 통해 전남도에 무상 사용 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나주=정훈환 기자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5일 최종 심사를 마무리했다. 〈목포시의회 제공〉

목포시의회 예결특위, 2회 추경 860여억원 확정

전국체전 개최 등 주요현안 심사...10개 사업 12억600만원 삭감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총 874억6천만원 중 총 10개 사업에 대해 12억600여만원을 삭감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재훈 위원장과 고경욱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수·박효상·최환석·최원석·최지선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22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련 예산, 본예산 이후 증액 또는 감액된 국·도비 보조금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열띤 심사를 펼쳤다.

예결위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했다.

정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특히 전국체전 개최 준비 및 민생경제 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잘 반영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의결된 예산안은 20일 제3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서 코끼리마늘꽃 배경 인생사진 ‘찰칵’

작천면 부흥마을...관광객 유치 2ha까지 확대 방침

강진군 작천면에 코끼리마늘꽃이 보랏빛 물결을 이루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작천면 부흥마을의 한 농가가 0.3ha(약 900평) 규모 부지에 식재한 보라색 코끼리마늘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마다 사잇길에 놓여있고 하트 조형물 등도 조성돼 있어 아름다운 사진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코끼리마늘은 토종 마늘로, 일반 마늘과 가장 큰 차이는 크기다. 일반 마늘은 5-6g 정도인 한 쪽이 대어섯 개 모여 한 통을 이루는데 반해 코끼리마늘은 한 쪽이 50g 정도로 무게가 거의 열 배에 달한다. 코끼리마늘이 일명 ‘대왕 마

늘’로 불리는 이유다. 코끼리마늘은 지름 10cm 가량의 동그랗고 진한 보라빛 꽃을 피우며 예로부터 흑마늘용 등으로 재배하다 최근에는 관상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부흥마을이 지역의 숨겨진 사진 명소 중 하나로 유명세를 타고 있음에 따라 코끼리마늘꽃 단지를 최대 2ha까지 점차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내 유휴지에 식재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코끼리마늘꽃 개화 시기가 작약, 수국 등과 비슷한 데 착안해 내년 ‘강진 수국길 가는길 축제’ 시즌에 맞춰 만개할 수 있도록 농가와 협의 후 올해 9월 말에 식재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진도군, 공약 이행률 30% ‘순조’

진도군이 공약 이행률 30%를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는 김희수 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분야 예산 30% 편성 ▲전 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진도=백세권 기자

해남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

해수부 공모...2027년까지 425억 들여 연구센터 등 건립

해남군이 전국 첫 수산 전문 산업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과 양식업의 기계·현대화를 위해 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유통·서비스·홍보센터, 생산·실증단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2027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425억원(국비 212억5천만원)을 투입해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부지 3만3천58㎡에 연구지원센터, 물류·유통·홍보센터, 생산·실증단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전국 최초로,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산물은 어획에서 양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양식수산물의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으로 수산양식 기자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남은 타시도에 비해 어업세력, 어선현황, 어업면적, 수산물 생산량이 월등하며 전국 대비 해면양식업 75%, 연근해어업 18%, 내수면어업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조성될 솔라시도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인근 연안 시군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첨단 스마트 연구개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현관 군수는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자재 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투자로 글로벌 첨단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군 발전 이끌 아이디어 공모’

내달 2일까지...해양치유산업 활성화·일자리 정책 등 8월 우수제안 선정...금상 70만원·은상 50만원 수여

완도군은 19일 “다음달 2일까지 ‘2023년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완도군의 현안, 역점·미래 사업 등에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소통·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크게 군의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인구 감소

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일자리 정책, 미래 발전 정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국민 참여 누리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응모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 금상(7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15만원), 노력상(10만원 상당 기념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완도군 기획예산실(061-550-503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압해 송공 어업인 편의시설’ 준공

휴게실·외부 화장실 등 조성

신안군은 “최근 압해읍 송공리에서 마을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편의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당초 사업비는 1억2천500만원이었으나 군비를 추가 부담해 총 사업비 3억3천600만원으로 군 실정에 맞는 태풍, 강풍, 염분에 버티도록 내구성이 강한 철골 구조와 벽돌로 외부 마감하는 등 튼튼하고 안전하게 완성했다.

송공 어업인 편의시설(쉼터)은 건축면적 104㎡(32평)로 주민들이 작업 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실

과 사무실, 남·여 화장실 1개로 구성됐으며 탁 트인 넓은 유리창과 벽체는 흰색, 지붕은 코발트 블루색으로 마감해 지중해 휴양지에서 휴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우량 군수는 “압해 송공 마을 어

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쉼터와 관광객 등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어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에는 현재 29개의 어업인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3개가 건립 중에 있다. /신안=양훈 기자

